

『청정운동』 관오사서 순회법회 열고 활동 본격화

내가 청정하면 온 세상이 깨끗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추진하고 있는 '청정운동'이 대구에서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9월 3일 오전 11시 관오사주지 지도에서 열리는 청정운동대구순회법회가 대구지역 청정운동의 출발선이다.

(사)대불청정대구지구(회장 이만희)와 대구불교산악회(회장 하운호)가 주최하고 대구청정운동추진위원회(위원장 김장근)가 주관하는 이날 법회에서는 대한불교진흥원 청정운동추진위원

초하루 및 각종 법회 방문

신행수첩 등 배포 동참 유도

알리며, 지속적인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 매일 1회 대구시내에서 가두 캠페인도 벌이며 일반사회에까지 확산시켜 나갈다는 계획이다.

대구청정운동추진위원회 이만희 준비팅장은 "청정운동은 거창한 불교종교와 개혁을 부르짖는 운동이 아니라 지금의 현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문제 삼는 운동"이라며, "나부터 청정해야 청정운동을 펼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므로 지역교장 송석구(前 동국대 총장)교수가 '보현보살의 10대 행원과 현대적 실천'이라는 주제로 강연한다. 또 청정운동의 취지와 실천지침, 의미 등도 설명할 예정이다.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에게는 청정운동신행수첩과 스티커를 나눠주고, 청정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청정운동선언문을 낭독하게 된다.

대구 청정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최근 구성된 대구청정운동추진위원회는 매일 초하루법회를 비롯한 각종 법회 법회를 찾아가 신행수첩과 스티커를 나눠주고 청정운동의 취지와 의미를

계 모든 실무자들부터 중심으로 돌아가 실천한다면 대구불교가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청정운동은 지난 1995년 대한불교진흥원이 2000년대의 새로운 재가불자상을 정립하기위한발원으로 시작한 신행개혁운동이며 사회개혁운동으로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전국 137개 수행단체와 1만5300여명의 회원이 동참했으나 IMF로 중단되었다가 지난 3월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뀐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다시 시작했다.

배지선 기자 jsun@buddhapia.com

경전 읽으며 참회합니다

대구 동화사, 윤 7월 참법정진예수제 봉행

대구 팔공산 동화사주지 허은은 윤 7월을 맞아 참법정진예수제를 봉행한다.

참법정진예수제는 경전을 읽으면서 참회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수행정진예수제로 9월1일(윤7월9일)부터 7일(윤7월15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통일기원대전에서 봉행된다.

이 기간 동화사는 모든 국장스님들과 사중 스님들이 동참하는 가운데 자비수침 참법기도와 선한 공덕을 통해 업장을 소멸하는 수행을 하게 된다.

개인발원문을 작성하고 매일 본인의 기도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는 기도일지를 기록해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마지막 날에는 천도재를 지내는 것으로 회향한다.

일일수행점내용은 △참법정진기도수행 △한 권의 경전독송 △참회의 108배 정진 △다라니독송 △불보살의 명호를 천 번 염송하는 기도정진과 △한 사람의 착한 일을 칭찬하는 것 △한 사람이 나쁜 일을 못하도록 저지하는 것 △한 사람의 배고픈 것을 구제하는 것 △남을 제도하도록 권하는 글을 나눠 주는 것 △의미를 못한 재물을 취하지 않는 것 △육식을 하는 사람이 하루 동안 육식 않고 재계하는 것 △한 생명을 구해서 살려 주는 것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는 것 △나태를 못하게 하는 것 등의 생활법칙으로 나눠져 있다. (053) 985-4404

배지선 기자

화재보험관리사무소 개소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주 우학)가 자동차 화재보험관리사무소를 개소했다.

영남불교대학의 보험사업은 1000개의 분원 건립 기금 마련을 위한 것이다.

개소식은 회주 우학 스님, 총무 밀허 스님, 김상길 총동문신도회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8월 23일 대웅전 1층 중무소에서 열렸다(사진).

우학 스님은 이 자리에서 "보험 사업도 적극적인 생산불교의 한 형태"라며 "많은 불자들의 동참이 교육과 인재발사를 비롯한 각종 불사를 돕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영남불교대학이 운영하는 보험관리사무소는 자동차, 화재, 상해, 운전자 보험 등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보험 상품을 취급할 예정이며, 보험가입 이의금을 전액 분원건립에 사용할 예정이다.(053)471-8585

배지선 기자

항림사 창건 30주년 음악회

경산시 하양읍 항림사(주지 묘해)가 창건 30주년을 맞아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9월 5일 오후 7시 BBS 특집 공개방송으로 진행되는 음악회는 인기가수 현철, 이웅, 이자연, 한영주와 도산 스님이 출연하고, 색소폰 연주가 김일수의 연주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053)854-2178

배지선 기자

법당이전기금 마련 일일차집 대구 대광명인불자회

대구 대광명인불자회(회장 박석규)가 법당이전불사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일일차집을 9월 16일 반월당 보현사에서 개최한다. 160여 회원이 35명 남짓한 법당에서 법회를 봉행하는데 한계가 온 것이다.

또, 부처님품에서 자기참조개발을 통해 자립생활을 해 나갈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애인직업재활교육장소 마련에 대한 필요성도 절실하기 때문이다.

일일차집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다과는 물론 다양한 생필품도 판매할 예정이다. 또, 시각장애인들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91년 장애인들의 등불이 되겠다며 20여명의 회원으로 창립한 대광명인불자회는 지금까지 시각장애인복지회 이 불교신행생활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참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으며 앞으로는 모든 장애인복지의 선봉선대로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053)257-7527

배지선 기자

한국어 강사와 봉사자 모집 대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법인 불교사회복지회(이사장 지도) 산하 대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소장 김태화)가 결혼이민자 여성에게 한국어 가르칠 전문 강사와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주 2회 또는 주 1회 2시간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국문학과 전공자, 유지원 및 초등학교 교사 경력자, 한국어 강사 양성과정 수료자 기타 한국어 강의 경험자를 우대한다.

대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는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한국사회에 안정된 정착을 및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053)475-2324

배지선 기자

지역불교현장을 찾아서

어르신들 웃음은 우리의 행복

영천 무량수봉사단

8월 22일, 영천 신녕면 부산리 신녕 노인요양병원이 시골벽적 활기가 넘친다. 영천 무량수봉사단장 혜해 스님과 단원 13명이 팀을 이뤄 병원을 찾았기 때문이다.

가운데 로비를 지나 복도 양쪽에 있는 세면장에는 목욕을 기다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줄을 섰고, 세면장 옆 로비에는 즉석 미용실이 차려졌다.

게 웃는다. 스님은 "한 번 웃는 것이 이들에겐 보약이 된다"며, 어르신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웃음을 선사하려고 애를 썼다.

무량수봉사단이 신녕노인요양병원에 출입을 시작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원외 조장은 "처음 봉사활동을 왔을 때 만해도 온수 시설이 없는 열악한 환경에 약취가 심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이전 봉사단의 도움으로 순간순간기도 설치됐고, 분유기도 많이 밝아졌다. 장선희 간호과장은 "간병인 자격증



목욕 · 이발 봉사를 펼치고 있는 무량수봉사단

을 취득한 전문봉사단으로서 안심하고 환자를 맡길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우 체계적인 활동이 지속되어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무량수봉사단은 은혜사교양대

대부분 전문 자격증 취득...안심하고 몸 맡겨

매주 지속·체계적 활동으로 큰 호응 얻어

팔순 나이에도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할머니들, 무량수 봉사단이 들어오기 전에는 간병인이 다총 머리를 잘라주는 바람에 많이 속상했던 모양이다. 할머니들은 영천과 하양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문 미용사의 솜씨를 단박에 알아봤다.

세면장에서는 봉사자들이 따뜻한 물에 흠뻑 적은 채 어르신들을 안아 옮기고 비누칠을 하고 머리를 감겨드리느라 바쁘다.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목욕봉사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데 무량수 봉사단원은 절반이상이 간병인교육을 받은 전문가라 능숙하게 어르신을 대했다.

배경식(45) 봉사자는 "간병인 교육을 통해 환자 다루는 요령을 익혔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고 봉사활동에 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할머니 잘 계셨어요? 아휴, 훨씬 건강해 보이시네." 병실에서는 혜해 스님이 어르신들을 둘러보느라 여념이 없다. 스님이 손을 흔드니 어르신들도 손을 흔들며 해맑

학을 나온 이들을 중심으로 2003년에 결성됐다. 98년부터 정신지체장애인이 설에 봉사활동을 나갔던 혜해스님이 하는 바람에 많이 속상했던 모양이다. 할머니들은 영천과 하양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전문 미용사의 솜씨를 단박에 알아봤다.

그리고 사찰에 관계없이 모든 불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전문봉사단을 만들기 위해 무량수봉사단으로 개칭했다. 무량수봉사단은 현재 150여명의 회원들이 7개조로 나눠 부림요양병원, 영천 팔계사장애인지원센터, 경산 백전중합사회복지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회원 90여명이 전문간병인 자격증을 획득하고, 보건소공무원을 비롯한 미용사, 마사지사 등 전문인들이 팀을 구성해 활동하고 있어 곳곳에서 협조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영주지사 : (054)634-3429

경북 9개 장애인 시설 및 단체 한자리

9월 8일 경상북도장애인종합예술제 개최

제5회 경상북도장애인종합예술제가 한 국장애인복지관 경북협회 주최,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훈) 주관으로 오는 9월 8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영주시민회관에서 개최된다.

'전통과 현대문화가 어우러진 예술의 향연'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경북 9개 장애인관련 시설 및 단체에서 700여명의 장애인과 지역주민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다양한 작품전시(공예, 서예, 회화, 문예 등)와 영천 팔계사 승리물이 응원단의 응원,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의 신바람노래교실 공연, 보현어린이집의 꼭두각시무용 등 다채로운 공연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경상북도 장애인종합예술제는 경북의 장애인들에게 문화 참여의 기회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예술적 재능을 개발하고 자립과 재활의지를 도모하는 한편 지역사회의 관심을 재고 시켜 문화경북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054)633-6415

배지선 기자

경주복지관, 가족사진 공모

경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풍광)은 가족사진콘테스트 '하하호호 우리가족이 야기'를 공모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주제는 자유다. 단 가족의 따뜻한 사랑과 화목을 나타내는 사진이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접수는 9월 11일까지며 1인당 2점 이내 작품을 응모할 수 있다. 입상작에 한해 사진 전시회도 열 예정이다.(054)776-7522

배지선 기자

구담사 대한 불교조계종 www.gudamsa.org

아가야, 미안하다!

태아 영가 엄마,아빠 49재 참회기도

· 입재일 : 양력 2006년 9월 3일(일요일) 오전10시 · 회향일 : 양력 2006년 10월 22일(일요일)

귀의 삼보 하옵고 저희 구담사는 매년 양력 3월, 6월, 9월(첫째주 일요일) 태아영가 49일 천도재를 올리어 기도 입재 하오니 많은 동참하여 엄마,아빠의 참회기도 동참으로 어두운 태 속에서 쓸쓸히 사라져간 태아 영가를 위해 극락왕생 기도 발원합니다.

엄마, 아빠 참회 기도
아가야! 미안하다.
얼마나 서운했을까?
그때 널 버린다는게 죄인지도 몰랐다.
이 세상의 밝은 빛을 보지 못하게 한 나를 용서 해 줄수있겠니?
아가여! 영가여!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다.
이제 뒤늦게나마 눈물로 참회하고 기도하는 구나.

● 준비물 : 분유(우유), 과일, 사랑, 초코파이 등(5재때는 관육을 하오니 수건, 양말, 신발, 비누, 아기 웃 등)

● 구담사 버스안내
• 강변역 테코노마트 주차장 앞 오전 8시 출발
• 도봉산역 1-7호선 오전 8시 출발 →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앞(포천방향)
• 조계사 앞 오전 7시 출발

태아영가 천도재는 왜 하는지?
■ 부모의 잘못으로 인한 낙태, 유산 되어버린 태아령을 위해 원경을 풀어지게 하는 것이다
• 가정에 우환 없이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발원 기도하시는 분
• 막힘 없는 사업 번창을 발원 기도하시는 분
• 학업 원만성취를 발원 기도하시는 분
*태아령은 : 부모의 업으로 살생한 업보로 조상은 나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같이 위패를 쓰거나 천도재를 지내지 않는다.
● 전화번호 : 대표 (031)533-2855, 2584, 팩스 (031)532-2441
● 계좌번호 : 국민은행 217801-04-021932 (예금주 구담사) 농협 225051-51-113712 (예금주 구담사)
*위패 봉안하는 관계로 미리 동참하여 접수 바랍니다.
*지방 불자님 접수 받습니다.
*구담사 대웅전 중창불사 모연 중
*그동안 동참하여주신 불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엄마아빠 참회기도도량 구담사 경기 포천군 이동면 연곡리 595 홈페이지 : 주소창에 "구담사"를 쓰세요. http://gudamsa.org